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3-0112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2023년 교육감배 채식사랑 이모티콘 공모전 대상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고아라

채식하고 탄소감소하고!

잘먹겠습니다~

콩먹고 힘이불끈

가을 마스코트는 호박!

2023 여름 제33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지구야 사랑해!

상추먹고 꿀피부

지구를 지키는 채식습관

Drop the비트

채식하고 환경적립

#냉이#더덕#봄

당근먹고 시력회복

겨울 우엉 최고~

오늘은 VTS day!

여름에는 달콤한 토마토

우리는 VTS히어로!

건강챙기고,환경챙기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3 여름
제33호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기획 및 편집 길기호, 김영상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교육감배 채식사랑 이모티콘 공모전 대상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인쇄 아진전산(T. 032-833-7155)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3-0112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특집

02 아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07 모든 아이들의 꿈이 저마다의 결로 빛나는 '결대로자람학교'
10 섬으로 가는 바다 학교 1기(대이작도) 활동결과보고
13 학생선수 성공시대를 위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16 학생을 꿈꾸게 하는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캠페인

22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우리 인사해요!
24 제4회 교육감배 어린이 요리 경연 대회 개최
26 행복한 동행, 우리 함께 읽 · 걷 · 쓰 할래요?

학교돋보기

28 인천 소방 인재 육성, 인천소방고등학교 함께합니다
30 가족이 함께 그린 그림책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
32 행복한 꿈 나들이, 양사초「봄 꿈자람초록학교」속으로
34 창업교육의 혁신을 위한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소개합니다

공감

36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경력 '1개월 선생님'과 '40년 선생님'의 이야기!
38 [해원초] 현직 동화 작가 선생님의 공감 수필 (옛 친구를 만나는 일)

정보

41 만화로 알아보는 인천교육청 5대 공약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편
46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 교육위원회 활동기
48 방송인 홍윤화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49 인천광역시교육청 sns 소개

GAJAEUL Dream Children's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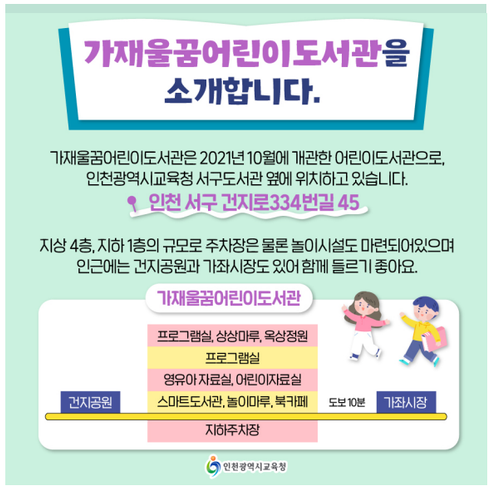
아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박근수 | 서구도서관 주무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나가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다면?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키즈카페는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죠.
가격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꿈꾸는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책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명실상부 인천 최고의 어린이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어떨까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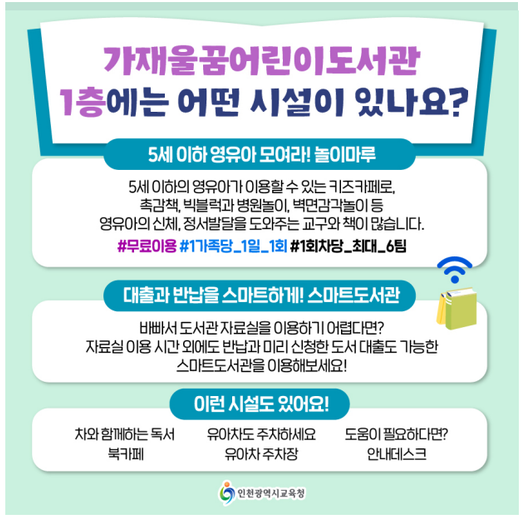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옆에 있어요.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규모로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하 1층은 총 50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인근에는 건지어린이공원과 도보 10분 거리에 가좌시장이 있어 함께 들르기도 좋아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주황색으로 곱게 칠해진 집 모양의 건물이 크기별로 2개가 나란히 있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1층에는 북카페와 놀이마루, 2층에는 영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3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3곳, 4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상상마루가 있습니다.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1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다른 어린이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놀이마루가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층에 위치한 놀이마루는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랍니다.

영유아 1인, 보호자 1인을 기준으로 1회차 당 최대 6팀이 이용할 수 있어 최대 12명이 모여 이용하므로 감염 등 안전 면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놀이마루

놀이마루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손뼉 치고 좋아할 다양한 교구들이 있는데요. 촉감책, 빅블럭, 포티큘러북이 있고,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병원·주방·화장대·목공놀이와 벽면감각놀이 등 영유아의 신체, 정서발달을 도와주는 교구와 책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용료는 무료! 가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더 좋은 놀이마루는 1가족당 1일 1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총 5회차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확인하시고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GAJAEUL Dream Children's Library

스마트도서관

1층 한편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료실 이용 시간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된 어린이 도서를 24시간 자유롭게 대출 · 반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후 4시 이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대출 신청을 해둔다면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해도 미리 신청한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으로 대출할 수 있는 야간예약도서 대출도 운영하고 있어요. 출퇴근으로 낮에는 도서관 방문이 힘든 분들이 퇴근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좋은 책을 읽어줄 수 있죠.

편의시설

이 외에도 깨끗하고 편안한 북카페, 유모차를 가져온 분들을 위한 유모차 주차장, 안내데스크 등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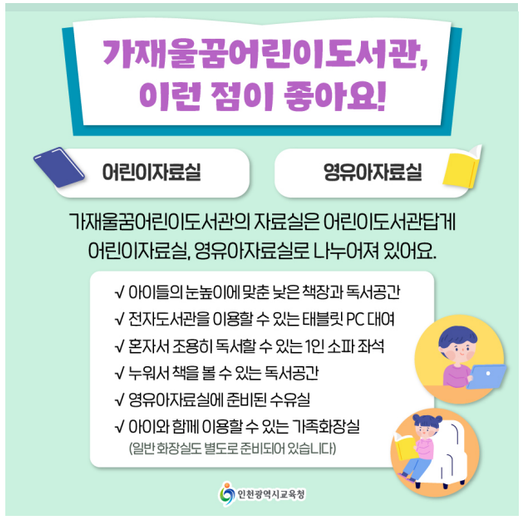
북카페

• 안내데스크

1층

• 유모차 주차장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이런 점이 좋아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이 있죠. 하지만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관답게 어린이자료실과 영유아자료실,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빠와 엄마를 위한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은 서구도서관에 있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책과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책을 고르거나 읽는 것이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특히 각각의 자료실에는 아이들의 키와 눈높이에 맞게 책장은 낮고 다양한 독서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비밀스러운 독서공간과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자료실에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고양이가 있어요.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단말기가 매일 오후 3시에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준답니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유아자료실

영유아자료실

GAJAEUL Dream Children's Library

가족화장실 & 수유실

그리고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이 영유아자료실 안에 따로 있어 더욱 좋아요.
뿐만 아니라 층마다 일반 화장실과는 별도로 가족 화장실이 있고,
넓고 큰 가족 화장실에서 아이의 배변활동을 쉽게 도울 수 있어요.

가족화장실&수유실

프로그램실

3, 4층에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실이, 4층에는 옥상 정원이 있어 파란 하늘을 보며 쉴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주위로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공원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시 책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주말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책도 읽고, 장도 볼 수 있고, 공원에서 놀 수도 있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요? 남녀노소 불문!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자매들이라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된 가족들이라면 더욱더 환영할 만한 공간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전문 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약 및 찾아오기

홈페이지

Growing Up School

모든 아이들의 꿈이 저마다의 결로 빛나는
인천형 혁신학교의 새 이름

결대로자람학교를 소개합니다

설연희 |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결대로자람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는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애매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이와 같은 미래 교육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결대로의 '결'은 학생 개개인을 고유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함을 의미하고 '자람'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앎과 삶을 개척하는 주도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혁신미래교육의 모델학교입니다.

결대로 → **존엄**
- 학생 개개인이 가진 저마다의 고유성, 나다움
- 학교의 철학과 가치, 고유성과 강점

자람 → **공존**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앎과 삶을 개척하는 주도적 성장
-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
- 혼자가 아닌 교육공동체와의 더불어 성장
- 모든 학교의 성장

행복배움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복배움학교는 처음 10교가 지정된 이래 지난 8년간 일방적이고 지시적이던 학교 풍토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입시경쟁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특권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조타수가 되어 여러 분야에서의 학교개혁을 선도해 왔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의 구조를 만들었고, 교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교사들이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을 이루어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이와 같은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혁신에 미래를 더하는 인천혁신미래교육'으로 혁신교육의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kr.go.ic

Growing Up School

혁신에 미래를 더하는 인천혁신미래교육

혁신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과정, 학습 등의 교육적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및 참여 구조
-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 공동연구, 공동실천에 의한 교사의 전문성 함양

+

미래

- **(학생 주도성)** 삶과 앎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혁신
- **(지역연계)** 학교와 지역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연대
- **(미래교육 주제)** 개인의 존엄성과 전 지구적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주제

(교육과정 자치)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결대로자람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은?

결대로자람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은 '학생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 삶의 현장에 기반한 지역연계 교육과정, 미래사회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앎의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행사의 계획과 실천을 넘어 교과 수업 및 프로젝트 등의 기획 및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과 연계된 학습'을 통해 이 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삶의 터전과 분리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간을 지역으로 확장하여 학생들이 넘나들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연계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 국제 보건 및 분쟁 문제, 빈곤, 성인지 등을 포함한 인권 문제, 교육격차와 불평등,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기술 발달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전 지구적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는 구성원의 주체적 결정과 책임에 기반하는 학교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별 철학과 비전, 각 학교의 실정 및 구성원의 실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학교의 강점과 다채로움을 드러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대로자람학교의 운영 방안?

그간 행복배움학교는 혁신학교를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처럼 추진함으로써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혐의를 받거나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역에서 고립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을 통해 '학교자치 기반의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모델학교로서의 역량을 길러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혁신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결대로자람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도전과 실험, 성과들이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이를 통해 인천혁신미래교육을 확산하는 모델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합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개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인천 미래교육의 주제
존엄과 공존을 위한 생태 전환교육

지역연계
학교와 마을의 연계

결대로 자람학교 교육과정

학생 주도성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학교자치 기반
민주적 학교 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윤리적 생활공동체

Sea School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1기 대이작도 활동 결과 보고

남선정 | AI융합교육과 장학사

조타실을 둘러보는 참가자들

풀(모래) 위에 앉아 풀등 이야기 듣고 있는 참가자들

선박 안에서 해양안전교육 받는 참가자들

기후 위기-생태 전환교육-바다학교

현 시기가 기후 위기인 것은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바다는 쓰레기, 고온화, 산성화로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바닷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이야기, 사진, 영상을 보면 바닷속의 변화가 무섭다. 바닷속은 인간이 아직 보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미지의 세계이다. 경이롭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우리 인간이 알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인천 앞바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야 바다의 중요성과 섬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있는데, 바다가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

인천의 보물인 바다, 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구인 모두가 자신의 지역부터, 모두가 함께 변화시켜야 하기에, 해양교육은 인천 시민의 매우 중요한 기후위기대응 행동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태전환교육이다.

바다학교는 '바다에서, 바다를 이용하여(생태계, 환경, 인프라, 사람 등), 바다에 대해(생태, 환경, 역사, 경제, 문화 등) 이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학교'이다. 바다학교 사업에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해양 섬 체험 프로그램, 해양 섬 탐구 프로그램, 도시-섬 청소년 워크숍, 해양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중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가 지난 6월 2일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부아산 정상

갯티길 코스 참가자

이작분교에서의 마무리 활동 후 전체 참가자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1기, 대이작도 활동 결과

첫 번째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에는 부원중, 청천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 120명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해양 관련 교육자, 공무원, 시민이 6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의 간단한 개교식 후 임대한 코리아스타호에 승선하여 조타실 등을 둘러본 후 출발하였다. 오롯이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참가자만 승선한 선박에서 학생들은 조별로 나눠 이동하며 해양 안전교육을 받았다. 해양 안전교육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이 함께 승선하여 교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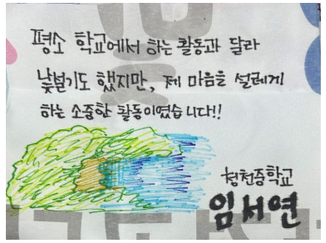
정기선과 달리 대이작도까지 곧바로 운행하여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하였다. 파도도 없어서 멀미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선박 대피 훈련을 겸해 하선한 학생들은 곧바로 장골마을의 식당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약 30분 정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작분교 선생님들은 얼음 물을 제공해 주셨고, 이작 치안센터 경감님은 교통통제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은 점심 식사 후 작은풀안 해수욕장에서 시작하였다. 작은풀안 해수욕장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학생들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모래사장에서 깨끗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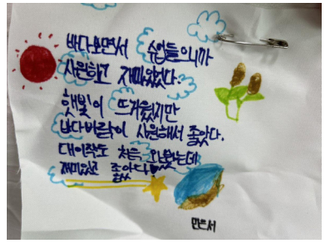
대이작도는 풀등이 유명한데, 활동을 시작하려 작은풀안 해수욕장에 모였을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 풀등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섬에서는 모래를 '풀'이라고 부른다. 학생들은 모래(풀) 위에 앉아 풀등(모래 등)을 바라보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세 코스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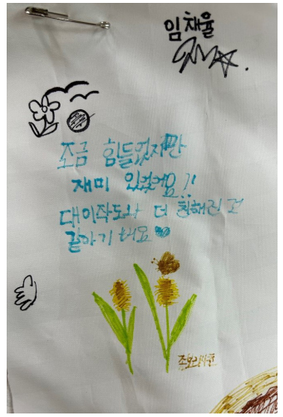
인천-경기만의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부아산 코스(작은풀안해수욕장-장골마을-부아산-형제바위), 바닷가 최고령 암석 길을 지나는 갯티길 코스(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암석-갯티길), 아름다운 사구와 사빈의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풀안-큰풀안 해수욕장을 오가는 코스, 이렇게 세 개의 코스에서 대이작도와 바다를 읽는(알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이작분교에 집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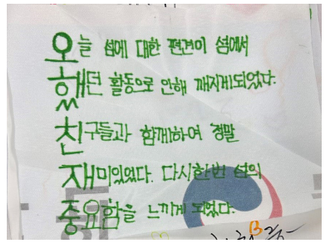
이작분교에서는 이작분교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해 줬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이작도와 학교에 대한 간단한 발표도 있었다. 이작분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설명과 환대로 대이작도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참가자가 걸으면서 알고 느낀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작도에서의 활동은 자연(섬·바다) 속을 걷고, 자연(섬·바다)을 읽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쓰는 '읽·걷·쓰' 활동이다. 쓰고 나누는 활동을 끝으로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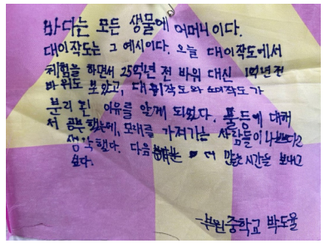
이작분교에서의 쓰고 나누는 활동 결과 중 일부, 그리고 섬 바다 교사 아카데미 참여 선생님들의 글 일부를 나누며 활동보고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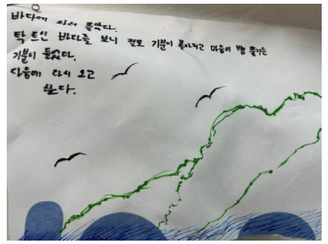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소개 영상

학생들이 폐현수막 조각에 쓴 소감, 그림

- : 오늘 대이작도에서 체험을 하면서 25억 년 전 바위 대신 1억 년 전 바위도 보았고, 풀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모래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 : 그렇게 맑은 바닷가는 처음 봤다. 이런 멋진 자연환경이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 : 오늘 섬에 대한 편견이 섬에서 했던 활동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 : 평소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달라 낯설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동.
- : 스티로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알게 되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니 기분이 뿌듯해졌다.
- :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벙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 : 바다는 고리이다. 왜냐하면 섬과 섬을 이어주며 물과 물이 이어졌고 거의 모든 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 : 대이작도의 역사와 둘레길의 꽃들을 설명 듣다 보니 대이작도의 섬이 이해가 되어 내가 사는 섬처럼 가슴에 안겨지는 것 같았다.
- :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라는 고귀한 프로그램과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인천의 아이들이 섬을 사랑하고 아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나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섬 둘레의 지형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인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알려 주고 싶었다.
- : 인천한누리학교 학생들이 어쩌면 철새와 같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 인천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 : 섬의 생태계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보존해야 하는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The 52n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학생선수 성공시대를 위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이준호 |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인천 육상 부문 금메달 수상

‘대한민국 미래 국가대표의 산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이번 소년체전은 10월 27일부터 4일간, 경남 울산시 일원 44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표적인 체육 축제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학생선수 742명(초등 265명, 중등 477명), 지도교사 74명 운동부 지도자 95명 등 총 9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3세 이하부 20종목, 16세 이하부 33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The 52n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인천광역시 금메달 25개, 메달 총 98개 획득

인천광역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금메달 25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45개 등 총 98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투기종목(태권도, 유도), 구기종목(핸드볼, 축구, 농구, 테니스, 하키) 및 양궁, 롤러 등에서 균형 있는 메달 획득이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학생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의 땀방울을 통해 앞으로 인천체육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체조 남자 중등부 메달리스트들
(왼쪽부터)김태양, 차예준, 윤한결 학생

남자 초등 축구 은메달 수상

특히, 체조 종목 남중 단체전, 개인종합과 육상 남중 4×400mR 에서는 우리 고장이 인천광역시로 전환된 이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초 축구에서는 학교 소속이 아닌 클럽 소속의 계양구 유소년 U12 축구 클럽팀이 인천 대표로 출전하여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인화여중 핸드볼팀은 12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하여 서울 대표인 휘경여중에 열띤 대결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2골 차로 석패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선전 속 다관왕 탄생 및 체조 종목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

체조, 양궁, 육상, 인라인롤러 등의 종목에서 다관왕을 배출했습니다. 차예준(청천중)은 체조(기계) 남자 중등부 제1경기-단체종합, 제2경기-개인종합, 제3경기-마루운동, 제3경기-평행봉에서 정상에 오르며 인천 선수단의 최다 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양궁 최은(신흥여중)은 여자 중등부 60m와 40m, 개인전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최은은 3관왕에 올라 종목별 최우수선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육상(트랙) 김태성(부원중)과 인라인스피드 김희정(청량중), 체조 윤한결(청천중)이 각각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나란히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체조 종목에서 금 6개, 은 3개,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예준 학생(청천중)은 이번 대회에서 금 4개, 은 1개, 동 2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체조를 이끌 재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차예준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차예준과 함께 박승택, 윤한결, 정희찬(이상 청천중), 김태양, 이태연(이상 초은중)으로 구성된 인천선발은 체조 남자 중등부 단체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인천 선수단이 이 종목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한결 또한 단체전과 함께 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인천 인화여중 핸드볼팀

선수단 총감독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은 “그동안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지도교사,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학생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하였습니다.

Dream Ieum University

꿈을 잇다! 세상을 잇다! 미래를 잇다!
학생을 꿈꾸게 하는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차영신 | 중등교육과 장학사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정각, 1학기 꿈이음대학 강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간! 5분도 채 되지 않아 신청 인원이 순식간에 몰리며 모집정원이 초과되어 강좌가 마감되자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정시에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몇 초만에 마감이 됐어요.", "예비번호 10번인데 선정이 될 수 있나요?", "○○○ 강좌의 모집인원이 15명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등등, 꿈이음대학 수강신청 첫날인 4월 7일에 동시 접속자 수가 8,000명을 초과하며 당일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꿈이음대학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음대학에 이와 같은 큰 관심과 참여가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역연계 꿈이음대학이 단순히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잘 반영한 교육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꿈이음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적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사업인지에 대해 안내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더 높은 꿈을 꾸게 하는 교육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꿈이음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연계 꿈이음대학이란?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은 학생의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대학 및 지역 기관의 교육자원과 연계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즉, 이 사업은 인천 지역사회의 풍부한 교육자원과 대학의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좌를 구성하여 교과융합형 진로탐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의 교육 공간을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고등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생의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대학 및 지역 기관의 교육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학생 중심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자원 + **대학의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 + **교과융합형 진로탐구 활동**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폭넓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KOR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올해 1학기 꿈이음대학 운영 강좌 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1기에만 108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2022년도에는 1년 동안 총 95강좌가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앞으로 2기, 3기까지 운영되었을 때 200개 강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 기관도 작년에 비해 5개 기관 더 증가하여 올해 총 25개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 2022년(1~3기) / 2023년(1기)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강좌 개설 현황

2022년	2023년
운영강좌: 총 95개 (1기: 61강좌, 2기: 27강좌, 3기: 7강좌)	**1기 운영강좌: 108개**
연계 기관: 총 20개 (대학 12개, 기관 8개)	**연계 기관: 총 25개** (대학 13개, 기관 12개)
참여학교 수: 총 86교	**1기 참여학교 수: 82교**
참여학생 수: 1,425명 (신청인원: 3,725명)	**1기 참여학생 수: 1,605명** (신청인원: 3,200명 이상)
이수학생 비율: 90%, 만족도 96.9%	**(목표) 이수학생 비율: 92%, 만족도 97%**

2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이 꿈꾸는 교육

2-1. 꿈을 실현하는 교육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은 학생들의 다채로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꿈이음대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고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 인천시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의 세계' 강좌를 통해 프로파일러를 꿈꾸고, 가천대 '뇌과학 이해를 통한 의과학 탐구' 강좌를 들으면서 생명과학과 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로봇랜드의 드론 강좌에서 드론 비행의 실습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드론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함으로써 꿈을 현실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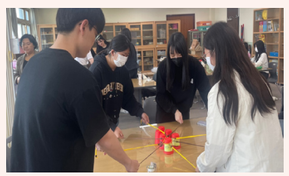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처럼 꿈이음대학은 학생이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꿈을 이루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다.

꿈이음대학 강좌별 활동 장면

효과적인 발표와 스토리텔링 전략 [조지메이슨대학교]

건축도면과 디지털 건축모형 제작 [인하공업전문대학]

편광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운석과 태양계 탐구 [극지연구소]



놀이중심 유아교육 길라잡이 [경인교육대학교]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의 세계 [인천경찰청]

인체구조의 이해와 탐구 [가천대학교]

2-2. 세상과 소통하는 교육

꿈이음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교육이다. 꿈이음대학은 학교 안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와 수업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삶과 연계한 교육,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교과 심화 내용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인천지역의 대학 및 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인천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학 및 인천경찰청 등 12개 기관과 협업하여 108개 강좌를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작년보다 개설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인문, 어문, 사회, 경제, 의학, 공학, 예술·체육 등 다양한 계열의 강좌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꿈이음대학은 지역의 연계 협력 구조를 만들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공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통로이자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역량을 키우는 장이 된다.

•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공동체의 협업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학교(협력교사)	지역사회 기관
• 운영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질 관리 • 예산 지원	• 지역 기관과 협업 • 학생 출결, 안전 관리 • 수업 지원 및 모니터링	• 교수인력(교수, 강사) 제공 • 교육공간(강의실 및 실험실 등) 제공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기관 및 대학

•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에 참여하는 협력 기관

총 25개 기관(13개 대학, 12개 지역 기관)	
대학(13개 대학)	가톨릭대, 가천대,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대, 인하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폴리텍대
지역 기관(12개 기관)	국립생물자원관, 극지연구소, 인천경찰청, 인천교통공사, 가좌청소년센터, 검단청소년센터, 연희청소년센터,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문화재단, 로봇랜드, 로이문화예술 실용전문학교, JH 자율주행기차코딩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시교육청-경인교대 업무협약식

시교육청-가톨릭대 업무협약식

2-3. 미래를 향하는 교육

꿈이음대학은 '꿈을 잇다, 세상을 잇다, 미래를 잇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의미처럼 학교 간,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교육을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사업이다. 꿈이음대학의 강좌들은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과융합형 진로탐구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고교학점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꿈이음대학의 강좌는 교과 지식 위주의 학습이 아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 주제의 탐구활동이 중심이며 강좌의 주제 또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차 기반 모빌리티 혁신 대응에 대한 탐구', '챗GPT와 메타버스, 3D 모델링을 활용한 가상 도시 만들기 실습'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을 추구한다.

• 2023학년도 1학기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강좌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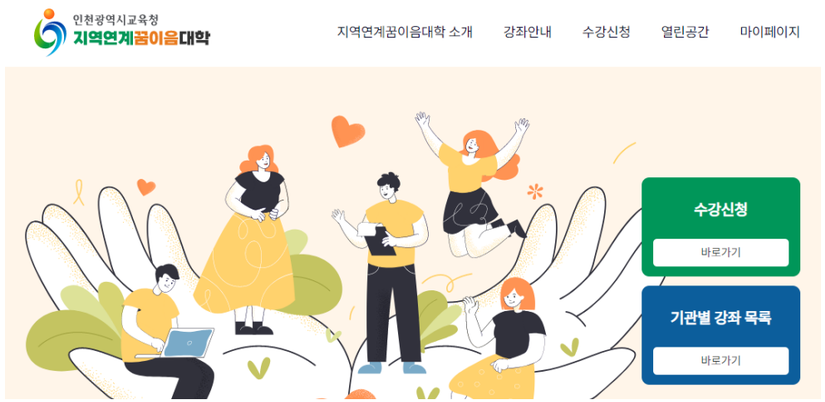
연번	대학 및 지역 기관	강좌 수	강좌명
1	JH자율주행전기차 코딩센터	1	미래차 기반 모빌리티 혁신 대응에 관한 진로 심화 탐구
2	가좌청소년센터	2	디지털 드로잉 활용 캐릭터 개발과 이모티콘 제작 외 1강좌
3	가천대학교	1	인체구조의 이해와 탐구
4	가톨릭대학교	6	심리학을 통한 인간 탐구 외 5강좌
5	검단청소년센터	4	챗GPT와 메타버스, 3D 모델링을 통한 가상 도시 만들기 실습 외 3강좌
6	경인교육대학교	13	AI 원리를 이해하고 AI 아트로 표현하기
7	경인여자대학교	10	뉴노멀,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 탐구 외 9강좌
8	극지연구소	1	광학 및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운석과 태양계 탐구
9	한국뉴욕주립대학교	4	미디어 속 패션 트렌드로 보는 역사 탐구 외 3강좌
10	로봇랜드 (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	5	IoT 스마트팜 기반 코딩 원리 탐구(도시농업) 외 4강좌
11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	미분적분의 개념 이해와 예제를 통한 실생활 적용 사례 탐구
12	연희청소년센터	4	뇌파측정을 통한 브레인 응용산업 분야 직업탐구 외 3강좌
13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4	친환경 도시디자인을 통한 순환경제 탐구 외 3강좌
14	인천경찰청	1	범죄 예방 및 과학수사의 세계(경찰진로탐구)
15	인천교통공사	1	미래기술의 집약체 친환경 도시철도 이해와 탐구
16	인천대학교	6	인공지능 탐구를 위한 선형대수학의 이해 외 5강좌
17	인천재능대학교	9	간호학 이해 기반의 간호 실습 외 8강좌
18	인하공업전문대학	15	레이저 메이킹 및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온·습도계 만들기) 외 14강좌
19	인하대학교	11	디자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반으로 한 매체 탐구와 디자인의 가치 외 10강좌
20	한국폴리텍대학교	5	건축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디자인 외 4강좌
21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4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Global Communications) 외 3강좌
계		108	

3 더 높은 꿈을 꾸게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3-1. 공감대 조성, 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꿈이음대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강좌 개설, 신청, 이력 관리 등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꿈이음대학 관련 각종 안내 및 지원 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추후 꿈이음대학 수업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홈페이지 (https://dream2m.ice.go.kr)



3-2.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은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을 위해 강좌별 모니터링과 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 강좌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업강사-협력교사 워크숍 및 평가회, 성과 공유회,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다.

꿈이음대학 수업강사-협력교사 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

꿈이음대학 수업강사-협력교사 워크숍

꿈이음대학 성과 공유회

3-3. 지역자원 목록 작성·공유,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방안 모색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은 현재 강좌별로 17차시로 운영되며 2/3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인정이 되어 학생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영역에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공유·관리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의 목소리 - 참가학생 소감 및 의견

*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뜻깊고 잊을 수 없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웠고, 무엇보다 이 수업은 나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 학교에서의 교과과목 외에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진로를 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

* 수강 후 글로벌 분쟁과 이를 분석,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항공 지상직 업무를 체험하면서 항공 체계와 장치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학습하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자기 개발에도 유용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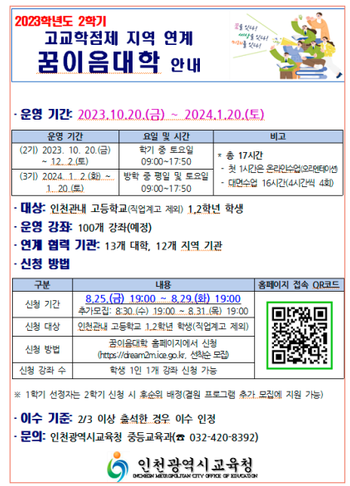
*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모여 함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배워가며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수업이었다.

* 편광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등 쉽게 접하기 힘든 기구나 장비를 사용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 드론에 대한 용어 및 개념 이해를 돕는 강의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고 드론을 움직이는 활동까지 해 보는 너무나 값지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 2023학년도 1,2학기 꿈이음대학 운영 안내

1학기 꿈이음대학 안내 포스터



2학기 꿈이음대학 운영 계획

Metaverse of Incheon Education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우리 인사해요!

정혜경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사

학생 성공시대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교육 플랫폼인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 2단계 구축을 완료하여 지난 4월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개원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온라인으로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진학정보, 진로체험 등이 모두 가능한 진로진학 종합 플랫폼으로 2022년 3월 개원했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최대 방문자 수는 49,524명으로 이미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제약 없이 진로 적성 검사 및 진로 진학상담, 미래 직업 탐색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메타버스 플랫폼의 각 공간별 특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다!

메타버스 월드에서는 가상의 메타버스 월드를 제공하여 교실, 부스, 특강관에서 또 다른 나! 아바타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기반 화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메타버스 교실 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교실에서는 화상서비스, 자료 공유 및 발표 기능을 제공하여 시, 공간 제약 없는 학교 수업이 가능하고 동아리방을 활용한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는 소모임 활동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교실뿐 아니라, 천 명의 인원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특강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스를 사용자의 공간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건물 저작 기능을 추가하여 각 주체별, 기관별 성격에 맞는 메타버스 건물을 저작하여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각 공간별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인천사이버 진로교육원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별 특징

※ 공간 설명표

구분	교실			특강관	부스
타입	일반	모둠	동아리	단일	단일
공간생성 승인여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입장제한(명)	50	48	10	1,000	7
공간입장 신청자격	학생, 교직원만 신청 가능			모든 회원 신청 가능	
공간입장 신청제한	강의시간 이후 추가 신청 불가				신청 불필요
입장방식	강의시간에 자동 입장(중간퇴실 : 특강관 O, 교실 X)				자유 입장

AI 기반으로 꿈꾸고, 내 꿈에 다가가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AI 분석을 통해 나에게 알맞은 진로 및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적성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생 개인별 진로활동이 AI 추천 기반 데이터가 되어 또다시 새로운 진로활동을 추천해 주는 환류시스템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진로 AI 시스템은 진로검사를 넘어 진로검사를 바탕으로 학과, 대입정보, 직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 직무, 온/오프라인 체험처, 상담사를 추천해 줄 수 있으며 이미 학생 성장을 돕는 1,000명의 진로직업 멘토단이 구성되어 이미 꿈을 꾸고 또 아직은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의 직업을 만나다!

사이버 진로체험은 가상 회사를 통한 게임형 직무체험인 마이퓨처컴퍼니(My Future Company)와 VR 기반 미래직업체험인 마이리얼커리어(My Real Career) 2종류입니다.

게임형 직무체험인 마이퓨처컴퍼니는 진로 AI 시스템에서 추천받은 직무를 가상 회사에서 체험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회사는 인천 대표 산업인 헬스케어, 바이오 2종 회사 12종 직무 IT로봇, 미디어 스포츠 2종 회사 16종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게임 형식으로 재미있게 미래 진로, 관심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VR 기반 미래직업체험인 마이리얼커리어는 인천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40여 종의 실감형 콘텐츠를 HMD 기기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가상현실 속에서 미래의 직업을 미리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에 특화된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인 공항, 항공 산업에 대한 직무체험 콘텐츠를 개발중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창업가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창업 콘텐츠를 만들고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고, 세계로 나아가다!

진로진학정보는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관심이 많은 고입, 대입정보 구축, 진로 체험처 지도화, 직업 정보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희망 진로 체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 각 구별 지도상에 체험처 목록과 정보가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체험처는 인천시교육청이 대한상공회의소 꿈길과 협약을 맺어 제공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체험 후 느낀 점을 브이로그로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동 기록 및 오프라인 진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LMS 기능을 제공하여 앞으로 개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2023년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의 고도화, 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사이버진로체험 고도화, 진로진학정보 내실화로 명실상부한 진로진학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앞으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여러분에게 그 미래와 꿈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메타버스 각 공간별 특징 및 활용법

Children's Cooking Contest

제4회 교육감배 어린이 요리경연대회 개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잔디정원에서
제4회 교육감배 어린이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윤주 |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올해로 벌써 4번째 돌을 맞는 어린이 요리경연대회는 초등학생 4~5학년 3명으로 구성된 팀 대결이었으며 참가자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연에 임하였습니다.

요리경연대회 참가팀은 지난 3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리를 연습하여 마침내 대회 당일 그 간의 노력의 결과인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90분간 요리경연이 진행되었으며 5명의 심사위원이 경연 심사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총 10팀으로 각각 개성 있는 팀명을 걸고 상상만으로

진지한 자세로 경연에 임하는 도전자들

군침이 도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쉐프프렌즈팀(이음초)은 두부와 마, 각종 채소를 갈아서 섞어 볼 모양을 만들어 튀긴 음식 '데리야끼 얌얌볼'을 선보였으며, 요리하는 마법사들팀(청람초)은 라이스페이퍼를 만두피로 활용한 밥만두 그리고 절인 레몬과 탄산수를 섞어 만든 음료에 적양배추 끓인 물을 부어 환상적인 보랏빛을 연출한 음료를 곁들여 '채소 모여 밤만두와 카멜레온 에이드'를 완성작으로 내놓았습니다.

단짠단짝팀(이음초)는 칼집을 낸 가지에 콩고기를 꽂은 후 바삭하게 튀긴'콩가탕슉'을 그리고 비건쓰리즈(서운초)는 갈은 연근과 귀리가루를 섞어 볼을 만들어 튀긴 후 토마토 소스를 부어 완성시킨 '연근베지볼과 꿀감자 그리고 쑥럽마들렌'을 각각 대회에 출품하였습니다.

요리조리 삼총사팀(작전초)은 두부를 꼬치에 꽂아 튀기고 채 썬 호박을 넣어 만두를 빚어 만든 '호박에 빠질 만두 하지!'를 내놓았으며, 아싸 프렌즈팀(논현초&은봉초)은 두부 면을 활용한 '두부로제파스타'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라면(양지초)팀은 고기를 대신하여 두부로 패티를 만들어 '채소두부토스트'를 그리고 차윤서(한별초)팀은 팽이버섯을 면으로 활용한 '버섯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삼총사 Y.J.Y.(부현동초)팀은 콩고기 패티가 들어간 채식버거세트인 '채식버거, 감자튀김과 딸바주스'를 요리하였으며, 2011(서운초)팀은 채소 요리의 선두주자 채소볶음밥을 태극기 모양으로 꾸민 '태극기 야채볶음밥'을 출품하였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훌륭한 요리를 선보인 학생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이 광경을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응원하는 부모님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연대회를 치렀습니다.

제4회 교육감배 어린이 요리경연대회의 대상은 '채소 모여 밤만두와 카메레온 에이드'를 선보인 이음초등학교 쉐프프렌즈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은 경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시상하시며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이들이 희망하는 미래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대회를 정리하는 학부모님은 이런 체험의 장이 더 많이 열려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Reading Walking Writing

행복한 동행, 우리 함께 읽 · 걷 · 쓰 할래요?

이선욱, 김요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을 시작하며

읽 · 걷 · 쓰란, 학습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읽기, 걷기, 쓰기 활동을 말한다. 2023년 인천교육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이 확대 · 개편된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주체들의 읽기, 걷기, 쓰기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 직원이 모인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읽 · 걷 · 쓰의 힘찬 출발을 선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부를 걷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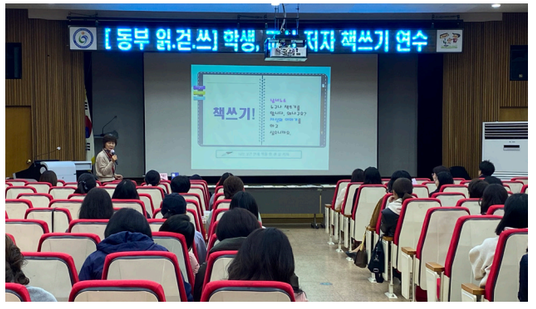
동부 관내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등 걷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생태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기후 생태환경 교육 전문 교사들과 함께 '노을이 아름다운 소래습지에서의 하루', '새소리가 아름다운 인천대공원에서의 하루', '늘솔길공원 양떼목장에서의 하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4월에는 인천대공원에서 교사 읽 · 걷 · 쓰 연수를, 5월에는 시민(가족)과 함께하는 소래습지 생태 읽 · 걷 · 쓰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을에는 학생 동아리, 시민(가족)과 함께 하는 인천대공원, 늘솔길공원 읽 · 걷 · 쓰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은 책을 읽고 자연을 즐기며 인천을 걷고 생태를 느끼고 기록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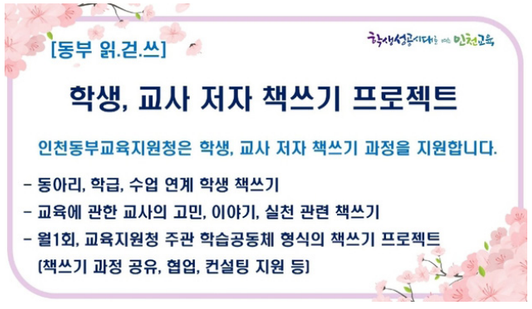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학생, 교사 저자 책 쓰기 프로젝트

"책 쓰기는 교직생활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동이 틀 무렵의 주말 아침, 80명의 선생님들이 교육청 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셨다. 학교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배움과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 위한 연수의 한 장면이었다. 책 쓰기는 학생과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공동체 결대로의 성장을 이루는 의미 있고 고차원적인 작업이다. 교사들은 연수 이후 매월 책 쓰기 프로젝트로 모여 책쓰기 과정을 공유하고, 도서 출판 과정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생과 함께 쓰는 영어 그림책, 다문화 학생 동아리 이야기, 6학년이 들려주는 책과 글 이야기,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평화 이야기, 후배 상담교사에게 쓰는 글 등 그 빛깔도 다채롭다. 독자를 넘어 책을 쓰는 저자로의 성장이 읽 · 걷 · 쓰와 함께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의 잠재력 역량 발현, 생태감수성 제고, 읽고 쓰는 문해력 향상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의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미래 소방산업의 창의적인 전문기술인 육성!"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술인의 꿈을 디자인하는 안전체험관

박현숙 | 인천소방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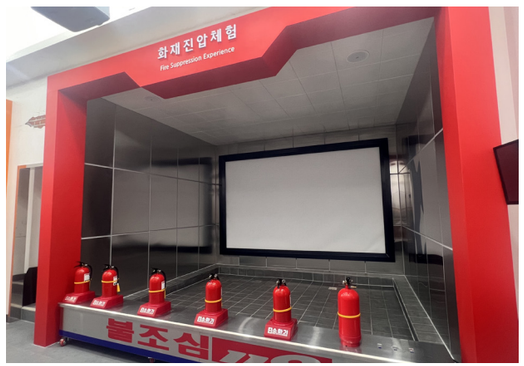
지난 5월 24일 인천소방고등학교 소·꿈·디 안전체험관(이하 소꿈디 체험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인천소방고등학교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안전교육 강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인천소방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체험관을 구축하였고, '안전체험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꿈디 체험관은 인천소방고 실습동 내에 위치해 있으며, 중학교 학생들이 맞춤형 안전체험을 통해 소방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참사〉

〈소꿈디 안전체험관 개관식〉

화재진압체험 부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기를 선택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체험 부스〉

〈지진체험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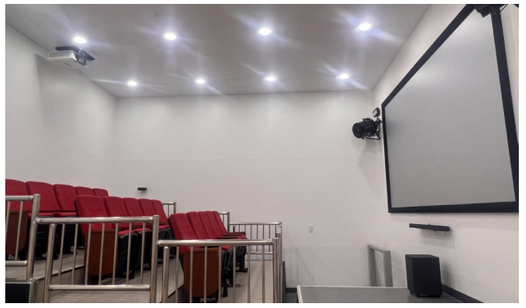
지진체험 부스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현장감으로 지진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 간접 체험하고, 행동 및 대피요령 습득을 목표로 하는 체험 활동입니다. 진도 규모를 약, 중, 강 3단계로 설정하여 진도 3-5-7의 지진을 체험하고 올바른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피난기구체험 부스

지진체험부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건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탑승하면 몸무게에 의해 하강하고, 내리면 자동으로 상승하는 무동력 승강형 피난기를 체험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피난기구체험 부스〉



〈4D 시뮬레이션체험 부스〉

4D시뮬레이션체험 부스

항공기 및 선박 등 각종 재난 사고 상황 시 안전한 탈출 방법을 영상에 따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모션 시트와 조명 등 다양한 특수 효과로 실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 탈출 체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소·꿈·디 진로·직업체험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는 위기 탈출,제연(5~6월), 간이 소화기 및 소화표 만들기(6~7월), 임기제 부사관의 길(9월), 소방드론의 이해와 비행시뮬레이터 조작(10월) 등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이 소방안전분야 기술인으로서의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소방고는 소·꿈·디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이 미래 소방의 꿈을 디자인하여 소방안전분야로 진로를 선택해 소방산업의 전문 기술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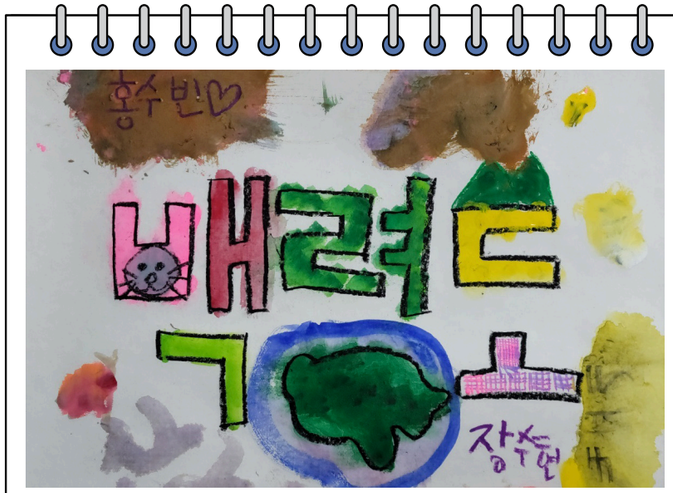
Picture Book Travel

가족이 함께 그린 그림책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

엄은숙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섬의 도시 인천

인천은 항구도시이며 개화기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고, 세계 무대 속 역동적인 국제도시로써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인천의 모든 섬들은 저 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다. 특히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감싸고 고운 모래를 간직한 섬이 있기도 하고, 깎아지는 해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전경을 이루는 섬도 있어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섬들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서 지역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신들이 숨 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도서 지역의 학생들이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더 큰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림책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섬마을 프로젝트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도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2023 학생 성공시대! 함께 성장하는 섬마을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청도를 시작으로 영흥도, 연평도를 거쳐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백령도의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해양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심리 정서 회복 등 전방위적 교육 활동을 통해 열악한 도서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이 중 '그림책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천의 도서 지역인 영흥도, 연평도, 백령도, 덕적도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바라보는 우리 섬'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별 완성된 작품들은 그림책으로 제작하여 도서 지역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섬, 가족이 함께 새롭게 그리다

5월 18일(목) 저녁노을이 지는 시간, 엄마·아빠·동생 등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백령초등학교 영어교과실로 나들이를 나섰다. 도서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미술 활동을 통해 한껏 신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웃음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가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백령초등학교의 '그림책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미술 강사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 섬에 대해서, 가족 간에 대화를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과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섬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불어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으며,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복한 세계시민여행 프로그램으로 섬에서 하기 어려웠던 미술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다."등 이번 체험을 소중한 경험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지역, 국가, 세계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더 나아가 지역에서부터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아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듬뿍 담아 가족이 함께 그린 그림책을 통해 도서 지역으로 떠나는 세계시민여행으로 인천의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행복한 학생성공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Spring Dream Growth Green School

행복한 꿈 나들이,
양사초 「봄 꿈자람초록학교」 속으로

정영교 | 양사초등학교 교사

결대로자람학교는 (우리의) 맘대로자람학교이다?!

학생주도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의기투합하였고, 이를 통해 2023.3.1.자 '결대로자람학교'의 첫 발을 내디딘 양사초등학교(교장 최형목)는 지난 12월 전 교직원이 함께한 교육과정 워크숍, 전입 교원 4명을 더한 '결대로자람학교 최초지정교 워크숍' 등 6일 동안 「꿈 꾸면 안되는 것은 없다.」, 「꿈 꾸어서 안되는 것은 없다.」는 신념 아래 함께 고민한 결과 「꿈자람초록학교」를 탄생시켰다. 양사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모두가 꿈꿀 수 있으며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지금도 변화해 가고 있다.

不可近(불가근) 不可遠(불가원)?!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작년까지 큰 호응 속에 운영되었던 자연학교의 기존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하고, 수요자가 새롭게 요구한 문화예술교육, 미래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더해 「꿈자람초록학교」로 거듭났다.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바로 지역사회와 마을자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본교 학부모와 지역의 재능있는 분들을 '우리마을 선생님'으로 모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고, 아버지들의 자원을 받아 '아버지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사면 걷기와 성덕산 등반'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꿈 나들이, 「봄 꿈자람초록학교」

4.17.(월)부터 4.21.(금)까지 5일간 진행된 봄 꿈자람초록학교는 인천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열다섯 분이 선사한 감동의 연주회로 시작되었다. '포레스텔라'등 10곡의 연주곡을 시각 장애가 있는 20살 언니가 전곡을 외워서 연주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못할 것은 없다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 프로그램인 '아버지 스포츠'교실은 미움받을 각오로 연차를 쓰고 오셨다는 아버지, 놀이와 체육 전문가이신 네 아이의 아빠 등 봉사를 자원하신 부모님들이 축구, 배드민턴, 피구를 지도해 주셨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2일차는 도시문화체험으로 '롯데월드'현장학습을 다녀왔는데, 최초 '서울랜드'였던 현장체험학습지가 기상 변수로 급히 수정이 되었으나, 선생님들께서 주말 답사까지 하시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양사초 선생님들의 단합과 순발력이 빛난 프로그램이었다.

3일차는 진로교육 집중 시행일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인 '갑비고차 농악'전수팀 어르신들의 공연과 국악수업, 토털공예가 선생님의 '가죽공예', 현직 사진작가님의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수업이 있었다. 6~70대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공연과 열정적인 수업 모습, 처음 해 보는 가죽공예에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완성 작품을 보며 뿌듯해하는 순간, 사진촬영과 편집 기법을 배워 만든 영상을 함께 보며 깔깔대는 장면에서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학교의 존재 목적을 새삼 깨우치는 하루였다.

넷째 날 오전에는 5마리의 말과 조련사분들이 오셔서 승마체험 교육을, 자연음식 연구가 선생님의 봄꽃 음식 만들기와 다도체험 수업이 있었다. 2미터가 넘는 큰 키의 말부터 조랑말까지 쓰다듬고 눈을 맞추며 교감해 보고, 실제 말을 타고 걷고 달리는 체험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오후에는 목공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저학년은 나무 인형과 솟대를 고학년은 나무 화분을 만들어 보았다. 서툰 못질에 땀을 벌벌 흘리던 아이 하나가 완성된 화분에 예쁜 꽃을 심어보겠다는 이야기에 속으로 '너희가, 너희 모습이 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학부모님들 20여 분들과 함께 저학년은 양사면 일대 걷기를, 고학년은 학교 뒤 성덕산을 올라 멀리 북녘땅이 보이는 별악봉까지 2시간이 넘는 산행을 하였다.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고, 산을 오르는 과정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학교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봄 꿈자람초록학교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 발표회가 있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한 봄나들이」라는 대주제 아래 학년별로 위계와 특색이 있는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나와서 발표를 하였다. 1학년 친구들의 승마체험 관련 협동화와 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5학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단막극,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영상편집기술을 이용해 만든 꿈자람초록학교 홍보 영상까지 다채로운 결과물들에 학생, 교사, 교직원 모두들 환호하고 놀라워했다.

양사초에 다니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교직원 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힘을 내며 양사초 교육 가족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지금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Global Startup School

창업 교육의 혁신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소개합니다

마성락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사

『글로벌스타트업학교』란 무엇인가요?

'글로벌스타트업학교'란, 인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미래 기술 트렌드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 마인드 함양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어디에 설립되나요?**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창업 교육을 위한 협업 공간이 있고 전철역 인근이라 편리한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1층에 268㎡ 규모로 올 6월까지 공간 설계와 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 **1기 학생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및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기관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아시아와 관내 초·중·고 학교급별 25명씩 총 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스타트업학교 1기를 2023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스타트업 플레이그라운드 캠프'는 스타트업 개념의 이해 및 4차 산업 미래 기술 체험과 팀 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스타트업이 바꾸어 가는 미래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향상하는 입문 과정 캠프입니다.

중학생 '스타트업 부트 캠프'는 팀 활동 기반 스타트업 빌드업 과정과 글로벌스타트업 생태계 및 기술 트렌드 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심화 과정 캠프입니다.

고등학생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교육'는 5개 모듈로 구성된 체계적인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 기반으로 주변 및 사회의 문제점에서 출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의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교육 기간	교육 방법	교육 시간
초등학생	2023년 7월~8월	스타트업 플레이 그라운드 캠프	40시간 이상
중학생	2023년 7월~8월	스타트업 부트 캠프	50시간 이상
고등학생	2023년 6월~12월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교육	80시간 이상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 **교원 대상 연수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천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인식 확산 및 인천광역시 창업 교육 생태계 구축 강화를 위해 '2023년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마인드 함양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에 연수 참여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 주제는

첫째, 미래 진로 트렌드 분석과 에듀테크(Education + Technology) 이해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변화 및 글로벌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셋째,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의인재 양성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 **1기 학생의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초·중·고등학생 공통 혜택]

연번	지원	내용
1	우수 활동 수료자 시상 (초·중·고 학교급별)	- 1위(1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부상: 노트북)
		- 2위(2명): NCF 이사장 표창(부상: 태블릿 PC)
		- 3위(5명): 에어팟 또는 버즈 이어폰
2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참여 활동 내용 기록
3	기념품 증정	참여 학생 전원 웰컴 Kit 및 진로 교육 도서 증정
4	디지털 수료증	수료 기준 충족 시, 디지털 수료증 NFT 발급
5	청년 창업가 멘토링	게임, 코딩, 디지털 마케팅 등 관심 분야 선배 창업가와 매칭 진로 상담

[고등학생 혜택]

연번	지원	내용
1	기업가정신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시기: 2023.7.26.~8.4. (9박 10일) - 장소: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기업가정신 해외 연수 비용 전액 무료
2	창업경진대회 출전 지원	발명 및 창업 관련 분야 경진대회 출전 멘토링 지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어떻게 양성할 계획인가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및 디지털 생태계 이해도를 갖춘 인천지역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해외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도 기업가정신 해외 연수는 9박 10일 동안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TU), 싱가포르 매니지먼트대학(SMU), 니안폴리테크닉 대학(NP), 베트남 최대 대기업 빈그룹에서 설립한 빈 유니버니시티(Vin University) 등 명문 대학 스타트업 센터 방문, 현지 창업가와 만남,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인사이트를 확장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인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및 디지털 생태계 이해도를 갖춘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 인재를 양성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인천특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우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단지 창업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며 학생들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변화에 따라 세계 흐름을 파악하면서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 모두 자기 삶의 진정한 창업 CEO가 되는 교육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Teachers' Day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경력 '1개월 선생님'과 '40년 선생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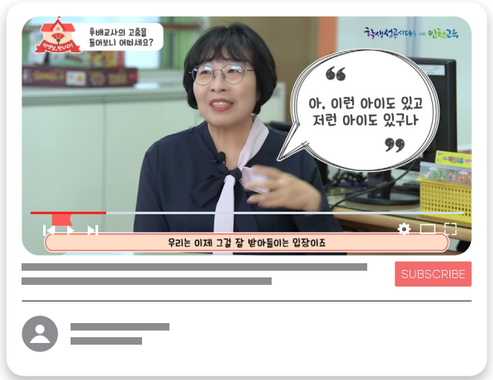
김한이 | 숭의초등학교 교사

인천교육청 유튜브에 스승의 날 기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썸네일부터 눈길을 끄네요. 영상 제목은 무려 '40번째 스승의 날과 1번째 스승의 날!' 경력 1개월인 선생님과 경력 40년 선생님의 스승의 날 맞이 인터뷰 영상입니다. 대선배와 새내기의 만남! 그들의 만남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새내기 선생님으로서의 고충과 걱정, 그리고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대선배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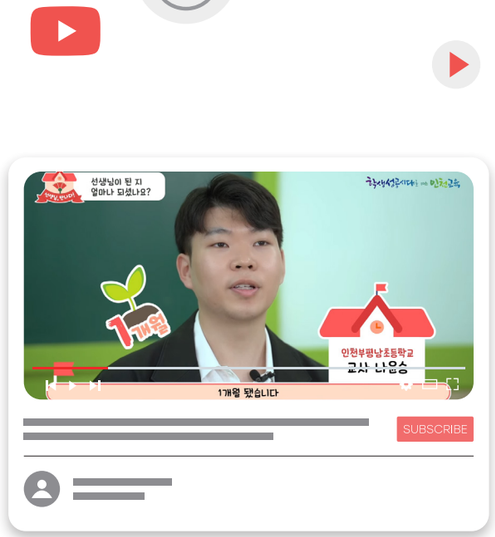
출연하신 선생님들의 소개 시간입니다. 새내기 선생님 두 분과 대선배 선생님 두 분이 출연하셨는데요.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경력은 각각 '1개월'과 '40년'!!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새내기 선생님들은 풋풋함과 열정, 대선배 선생님들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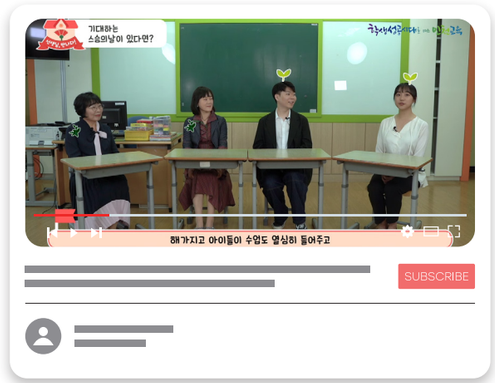
매일매일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수습하는데 바쁘시다는 새내기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수년 전에 똑같이 겪어 왔던 저의 모습과 고충이 문득 떠오릅니다.



새내기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대선배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보니 역시 연륜과 경험이 느껴집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음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선배 선생님! 언제쯤 후배 선생님들은 저런 교실 속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후배 선생님들의 고충에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저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따듯하게 대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학교 업무까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1개월 된 새내기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다들 아시죠? 학습자료 제공부터 조언까지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잘 해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선생님들끼리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한 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문득 신규 시절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신(?) 옛 부장님이 떠올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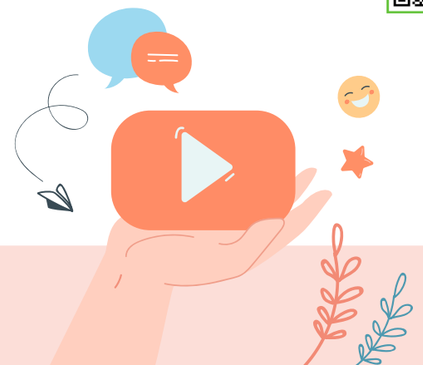
저희 많은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조용히 지나가자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속으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학생들의 축하와 감사 인사를 기대하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1개월 차 새내기 선생님들과 40년 차 대선배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영상 속에서 만나 보시죠.

지금까지 스승의 날 맞이 새내기 선생님과 대선배 선생님과의 만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대선배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도 있으니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힐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만나다
영상 바로가기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Meeting an Old Friend

옛 친구를 만나는 일

유진 | 인천해원초등학교 교사

우리 반 성윤이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비밀인데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응, 알았어. 말 안 할게. 뭔데?"

"제가요, 아영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백을 못 하겠어요."

순간 교실에 꽃이 피고 향기가 퍼지는 것만 같았다.

괴롭고 쓰고 마음이 어지러우니 고민이겠지만, 이제 검은 머리카락과 흰 머리카락이 반반이 섞인 담임 눈에는 1학년 성윤이의 고민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다.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안타까운 성윤이에게 짐짓 나도 괴로운 듯 진지하게 물었다.

"고백하지 왜?"

"친구들 있는 데서 고백하면요, 친구들이 놀릴까 봐 못하겠어요. 너무나 고백하고 싶은데요."

"아영이는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6살에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아영이가 너무 예뻤어요. 7살 반이 되어서는 아영이가 없어서 엄청 실망했어요."

우문현답이었다. 예쁘니까 좋아하지.

"1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돼서 좋았겠네?"

"네, 그래서 고백하고 싶어요."

"흠, 그래. 좀 더 생각해 봐. 고백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좋아해도 좋고."

난 성윤이가 아니니까, 고백을 해도 예쁘고 고백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웠지만. 사실 내 맘도 성윤이 말대로 고백하고 나서 놀림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스러웠다.

성윤이와 아영이는 올해 우리 반 친구다.

동창(同窓), 같은 창 아래서 공부하고 배우는 초등학교 첫 번째 동창생이다.

지금 나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는 길이다.

성윤이와 아영이는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둘을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

40년 만에 동창을 만나러 가는 길은 조금 긴장되고 궁금하고 귀찮기도 했다. 나에게도 성윤이와 아영이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던 계절이 있었으련만, 10년이 4번이나 지나는 동안 옛날의 추억들은 마치 떨어져 내리는 테트리스 조각처럼 매일매일 해치워도 쌓여가는 현실의 일에 밀려 깊고 어두운 기억 속에 깊이 묻혀버렸다.

"진아, 올 거지?"

"으으응, 가야지."

거절하는 일은 10년이 4번이 지났는데도 어렵다. 순간의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창 모임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설렘보다는 친구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퇴근 후 작은 애 저녁을 차려주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한별아, 엄마 오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야 돼. 엄마 오면 문법 같이 보자."

새로 학원을 옮기고 힘들어하는 작은 애를 두고 가려니 불편했다. 영어 숙제가 밀리면 학원에서 늦게 올 텐데, 늦게 오면 내일 수학 학원 숙제가 늦어지고…. 불안과 짜증이 밀려왔다. 금요일 저녁 내비게이션을 켜고 처음 가보는 길에 올랐다. 자라처럼 목을 쭉 빼고 차를 몰았다.

어딘지는 모르겠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차가 많이 밀린다. 검색했을 때는 1시간 반 걸린댔는데, 표시창에 나타나는 운전해야 할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다. 내 차선만 밀리는 것 같아서 옆 차선으로 바꿨더니 이번엔 여기가 안 빠진다. 내가 차선을 바꾸기만 하면 밀리네….

오래전 친구들은 기억 속에서도 멀고, 길은 막히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티도 나지 않을 텐데, 벌써 약속 시간도 다 지났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다음엔 어떻게든 오지 말아야겠다.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긴 뒤에야 주차장에 도착했다. 나만 늙었으면 어쩌나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만나기로 한 고깃집을 향해 서둘렀다.

고깃집 문 앞에 서자,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면 창피해서 어쩌나 싶고 누군지 생각이 안 나면 미안해서 어쩌나 걱정을 하며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 그래, 너!"

"어머, 얘!"

딱 보니 알겠다. 달라지긴 했어도 어릴 적 친구 얼굴이 금방 떠올라 웃음이 났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웃음을 터뜨리고 나자 먼지 앉은 오래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신기했다. 차곡차곡 나를 내리누르던 밀린 집안일도, 작은 애의 영어숙제도, 골치 아픈 직장에서의 일도 다 사라졌다. 흔히 보이는 상가의 작은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현실이 모두 잊혔다. 나는 해맑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들어갔다.

얼굴은 달라졌는데, 동창을 떠오르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다.

그 애를 기억나게 하는 눈빛이 그랬고 목소리가 그랬고 웃음이 그랬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웃었던 걸까? 서로 자꾸 웃음이 났다. 웃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현실의 무게가 조금씩 날아갔다.

나의 어린 날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웠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떠올려주는 친구가 있어서 "아, 맞아. 그랬지." 하며 웃었다. 더러는 내 기억엔 없고 친구 기억에만 있기도 했다. 나는 기억하는데, 친구는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 어쨌든 옛 기억 속의 우리는 소중하고 예뻤다.

떠들썩한 반가움이 가라앉자 조금씩 과거보다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진아, 너 월급 삼백 받지? 얘는 월급이 천이야."

"그렇게 많이 받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치 내 삶이 월급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다. 야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억지로 웃느라 양쪽 볼 근육이 아팠다.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을 거슬러 살아오긴 했구나.

Meeting an Old Friend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삶의 근육들을 키우느라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조금 쓸쓸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그랬어, 친구야. 나도 시간에 길드느라 얼굴에 기미가 끼고 공간을 버티느라 돈에 예민해졌단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한 채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애의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보며 현실의 우리를 보았다.

그러함에도 나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에 풍당 빠져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눈빛이 그렇게 만들었다. 희망차고 따뜻하고 밝고 아름답고 아늑했던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영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다. 지친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순수한 기대로 가득했던 그 시기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의심스럽고 불안한 현재를 안정시켜 주고 심호흡을 할 여유를 주었다.

결국 내가 옛 친구를 만나러 가서 만나고 온 친구는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이었다. '그땐 그랬어.' 지나가 버린 그 기억이 주는 힘으로 지금의 내가 위로를 받았다.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 보자.' 내일의 나에게 용기를 보냈다. 옛 친구를 만나는 일은 소중했다.

우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이 친구들은 2023년 올해를 함께 기억하는 오래된 친구들이 될 것이다. 같은 창 아래서 공부하는 우연 같은 단 하나의 운명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현재는 행복하고 감사한 미래를 이미 품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아영이 귀여워."

사과머리 아영이를 보고 성윤이가 지우에게 말했다. 그러자 지우가 말했다.

"난 아닌데."

성윤이가 멈칫하더니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했다.

"아영이 귀여워."

성윤이는 아영이에게 고백을 하는 대신 아영이를 칭찬하기로 마음먹었나 보다. 그것도 좋긴 한데…, 이러다 성윤이가 여자애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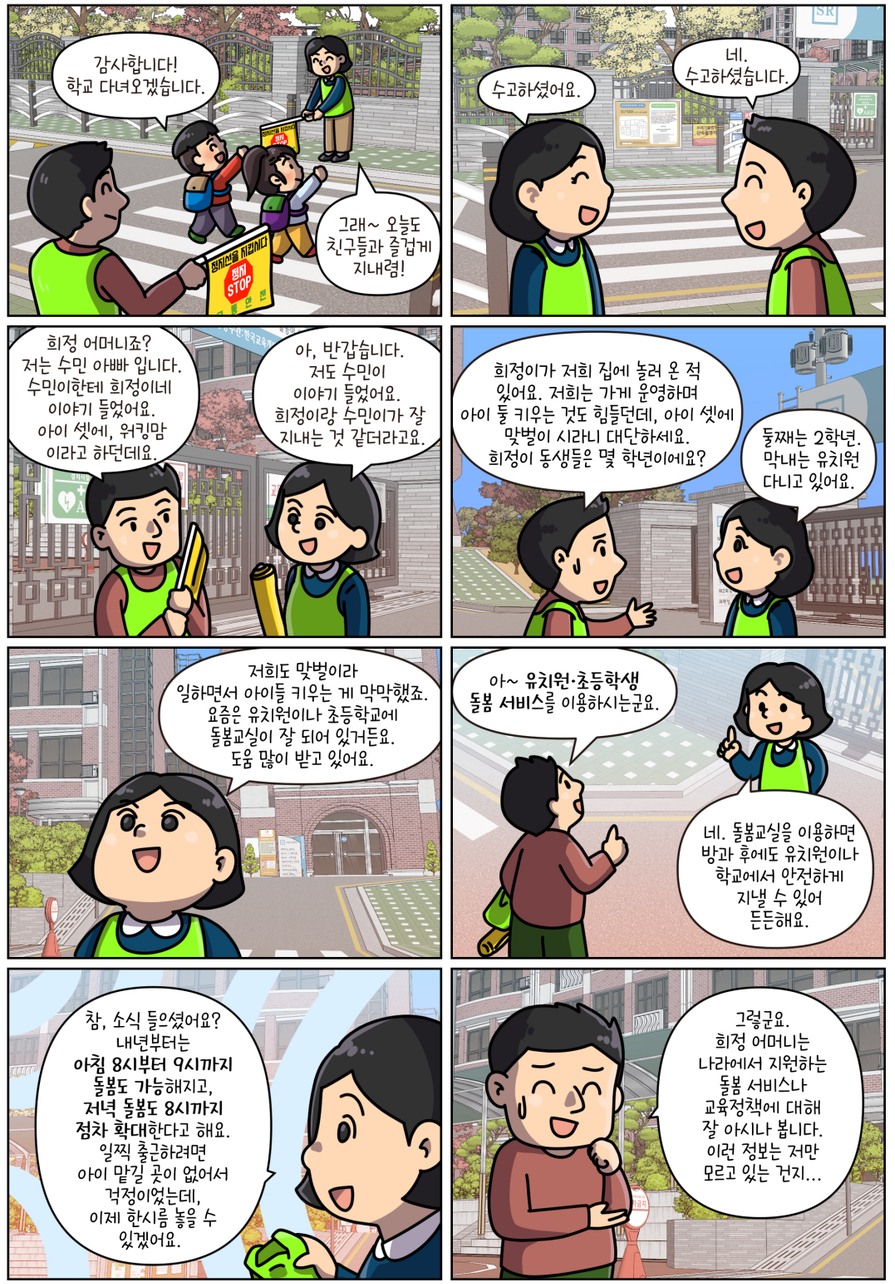
어린 친구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는 축복받은 교사다. 아름다운 시간을 지켜볼 수 있는 선물 같은 나날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아이들의 기억에 밝은 햇살과 향기로움을 조금 더 보태기 위해 기운을 낸다.

KOR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만화로 알아보는 인천교육 5대 공약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비전 아래 더욱 도약할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5대 공약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만화로 알아보는 5대 공약 만화를 소개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2

3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4

5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으로
더욱 성심껏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Board of Education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2023. 4~5월)

김형준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제1부위원장, 정종혁 제2부위원장, 이봉락 의원, 이오상 의원, 임지훈 의원, 임춘원 의원, 한민수 의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서지역 학교 방문, 조례안 등 심사,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등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인천광역시 의회를 구현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KOR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5. 11.(목)부터 5. 12.(금)까지 교육위원회는 도서지역 학교 교육 환경 점검을 위해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소, 특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교직원 관사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도서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16.(화)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5. 26.(금)부터 5. 27.(토)까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광역시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선수단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전을 기원하였으며, 27일에는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씨름 경기를 찾아 인천 선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6. 1.(목)부터 6. 29.(목)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며 교육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2023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Ambassador of Incheon Education

방송인 **홍윤화**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소통협력담당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방송인 홍윤화를 신규 홍보대사로 5월 4일 위촉했습니다.

홍윤화는 인천 부평여중, 부개여고를 졸업했으며 2008년 SBS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2014년 · 2016년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이력을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방송을 통해 평소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그녀는 흔쾌히 이번 홍보대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로서 공익캠페인과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활약할 예정이며, 향후 활동은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소개됩니다.

홍윤화는 위촉식에서 "부평여중을 거쳐 부개여고를 졸업한 '인천의 딸'"이라며 "어릴 때 인천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꿈을 키웠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의 수많은 후배가 좋은 교육을 받고 인천을 빛내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교육청 홍보대사는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 어려운 역할임에도 기꺼이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생들이 홍윤화 홍보대사를 통해 많이 웃으며 내면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현황

이름	직업	출신 학교	비고
조나단	탤런트, 유튜버	인천용정초	
송글송글	MC, 탤런트	가좌초, 동인천여중, 가좌고	
파스텔걸스	가수	인천비즈니스고, 영화국제관광고, 한국주얼리고, 인천서창중	
신용남	가수	부개고, 부평동중, 인천고	
박혜원	가수	인천석남중	
웅성우	배우	상인천초, 구월중	
계	이상 6명		

인천광역시교육청
ice.go.kr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 대상
인천 관내 초중고 다자녀 가정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항목별 지원 내용

신학년 학습 준비비
지원금액 초·중·고 20만원(제로페이 포인트 지원)\
사용범위 의류, 도서/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등으로 제한
※ 자세한 사용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추후 대상 학부모에게 별도 안내

숙박형 체험학습비 (수학여행.수련활동)
- 지원금액 (수익자부담경비 감면)
① 숙박형 수학여행 : 초·중 15만원 범위 내 실비/고 28만원 내 실비
② 숙박형 수련활동 : 초·중·고 10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기간
2023년 12월 29일 내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양식은 각급 학교에서 안내 예정

인천광역시교육청